점 하나 찍는데 31초 심혈…'수국' 화폭에 만발

뇌성마비 장애인 백은영씨 집념의 첫 개인전
내달 9일까지 갤러리 생각상자서 24점 선봬
"불편한 몸으로 최선, 아름다운 세계로 안내"

점 하나를 찍는데 31초가 걸리는 뇌성마비 여성장애인이 수국 작품을 선보인다.

그는 수국 한 송이를 그리기 위해 수백번의 점을 찍는데, 손을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가운데 붓을 들고 몇번을 공중에서 흔들리다가 점이 찍힐 자리를 찾아 한 점, 한 점을 찍어가며 화면에 수국을 탐스럽게 피워낸다.

19일 개막, 오는 9월 9일까지 갤러리 생각상자에서 '수국 그리는 여자'라는 타이틀로 열리는 백은영씨의 첫 개인전이 그것으로, 작가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 물감을 파레트에서 섞어 캔버스 위에 한 점 한 점 정성을 다해 찍어가며 수국 한송이 한송이를 완성해냈다.

이번 전시는 광주시남구장애인복지관(관장 조용호)과 갤러리 생각상자(관장 주홍)가 공동주관하고, 광주 남구가 지원하는 남구장애인예술단 그린갤러리 소속 백 작가의 집념의 첫 개인전이다. 작가가 일상 속에서 느낀 감정과 기억을 '수국'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섬세하게 풀어낸 작품들이 출품됐다. 출품작은 수국 작품 24점과 스케치로 그린 주변 친구들의 인물화 50여점.

백 작가는 주홍 관장이 가르치고 있는 남구장애인복지관에서 만난 10명 중 한 명이다. 갤러리 생각상자가 치열하게 작업을 해온 장애인 화가들 중 매년 1~2명에게 발표기회를 주던 것의 연장선상에서 전시가 성사됐다.

작가는 2022년부터 수국에 본격 몰입했다. 몸이 전체적으로 움직이기 힘든데다 선을 하나 긋기도 어려울 만큼 여건이 좋지 않지만 점을 찍어가며 작품을 완성했다는 설명이다.

처음에는 붓으로 하기 어려워 면봉으로 점을 찍었다고 한다. 위에서 언급한 점을 찍는데 31초가 소요됐다는 것은 주홍 관장이 영상으로 찍어서 확인해본 결과다.

그만큼 그림에 도전하는 일이 장애인들에게는 쉽지 않은 여정인데 이를 극복하고 이번에 전시를 통해 작품을 선보이게 됐다.

전시에서는 '수국, 블랙홀에 빠지다'를 비롯해 '무등의 수국밭에는 내가 없었다', '수국 블랙홀에 빠지다', '환상 속으로', '알록달록 수국수국 1·2, 환상 속으로', '달을 품은 수국' 등 다양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이를테면 작품 '무등의 수국밭에는 내가 없었다'는 자신이 휠체어를 타고 직접 무등산에 갈 수 없는 대신, 누군가로부터 무등산에 수국밭이 있다는 것을 듣고 그린 것이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QR코드를 통해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 및 음성 해설이 제공되는 배리어프리 전시로 기획돼 모두가 함께 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느리지만 단단히 꿈을 이어온 작가는 이번 전시에 대해 "오랫동안 꿈꿔온 순간이 현실이 돼 정말 기쁘고,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다"면서 "수국은 제게 희망의 빛이자 미래의 꿈이다. 점 하나를 찍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만큼 오래 기억에 남을 그림을 그리고 싶다. 언젠가 '세상 어딘가에 '로사'라는 행복한 화가도 있었지'라고 기억해주신다면 감사할 것 같다"고 전했다.

조용호 관장은 "남구장애인예술단을 통해 재능있는 예술가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장애예술인들이 문화예술의 주체로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홍 관장은 "우리는 2년 동안 수국을 그리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봤다. 불편한 몸으로 최선을 다해 수국을 그리는 작가는 아름다운 세계로의 안내자이자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에서 나오는 '꽃이 핀 쪽으로' 우리를 안내한다. 작가의 내면에 핀 수국밭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아름다움'에 대한 사색의 시간을 마주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무등의 수국밭에는 내가 없었다'

백은영 작가(활동명 로사)는 2022년부터 남구장애인예술단 활동을 시작해 광주시립미술관과 전일빌딩 245 (시민갤러리) 등에서 열린 단체전에 꾸준히 참여해왔다.

토·일요일은 휴관이며, 개막식은 19일 오후 성대하게 열렸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작품 앞에 잠시 멈춘 백은영 작가

다이토 마나베, 10년 만에 다시 문화전당 무대에

ACC 개관 10주년 기념 내달 5~14일 'ACT 페스티벌'서
'SSNN' 오디오비주얼 콘서트 세계 초연…비주얼 작품도

세계적인 사운드·미디어 아티스트 다이토 마나베가 10년 만에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김상욱)을 다시 찾아 세계 첫 공연을 펼친다.

21세기를 대표하는 일본의 미디어 아티스트이자 전자음악 작곡가, 프로그래머, DJ인 다이토 마나베는 기술과 예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혁신적 작업으로 국제적 명성을 쌓아왔다.

특히 지난 2015년 ACC 개관 기념 'ACT 페스티벌'에서 드론 24개를 활용한 군무 퍼포먼스 '24개의 드론'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다이토 마나베는 올해 ACC 개관 10주년을 맞아 오는 9월 5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ACT 페스티벌 2025'에 다시 참여한다. 그는 페스티벌 첫날인 오는 9월 5일 ACC 예술극장 극장1에서 오디오비주얼 콘서트 'SSNN'(Sound Synthesis Neural Network)을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

다이토 마나베의 신작 'SSNN'은 인간 뇌의 뉴런 발화 원리를 소리로 변환해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음악을 만들어내는 공연 작품이다. 예측할 수 없는 신경 신호가 곧바로 음향으로 이어지며 기술과 예술을 넘나드는 독창적 체험을 선사한다. 다이토 마나베는 'SSNN' 공연 후 또 다른 오디오비주얼 작품 '변환의 변형'을 한국 최초로 선보일 예정이다.

다이토 마나베

이외에도 다이토 마나베는 이번 'ACT 페스티벌' 기간 동안 미디어 설치 작품 'BPU'를 한국 최초로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서는 '워크1', '워크2', '워크3' 작품 세 점이 복합전시 5관에서 관람객을 만난다. 전시는 △뇌의 청각 반응 시각화 △소뇌 오가노이드로 사족보행 로봇 제어 △심박·호흡 등 생체 리듬을 외부 음악 리듬과 연결하는 실험을 통해 뇌세포의 감각·학습·적응 과정을 예술적으로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관람료는 무료.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프랑스 파리 '씨떼 레지던시' 머물며 작업해요

광주비엔날레·가나문화재단 공동 주관 10월부터 입주

(재)광주비엔날레가 광주 기반의 우수한 현대미술 작가를 대상으로 '2025 파리 씨떼 레지던시 입주 작가 공모'를 진행했다.

광주비엔날레와 가나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 한 명을 선정해 창작활동을 지원한다. 선정된 작가는 오는 10월 3일부터 3개월간 프랑스 파리에 있는 씨떼 레지던시(Cite internationale des arts)에 입주한다.

프랑스 파리 씨떼 레지던시는 1940년대부터 파리 마레 지구와 몽마르트를 거점으로 총 325개의 스튜디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1000명 이상의 작가가 이곳에서 창작과 교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주거 공간을 포함한 다양한 작업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고 예술가들의 교류와 협업을 통해 열린 예술 생태계를 표방한다.

씨떼 레지던시 공동작업공간인 판화 작업실.
제공=파리 국제예술공동체

자세한 내용은 광주비엔날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